

-Date: 22 Tammuz 5786 (July 7, 2026)

Torah Portion: Mattot/Massei

Topic: 여호와 엘로힘의 길, 제 1 부

민수기 35 장 11 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정하여 도피성으로 삼아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피성적으로 מִקְלָל (밀크랄 ; 도피성)의 제도는 의도함 없이 실수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을 위한 자비로운 조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토라는 훨씬 더 깊은 층의 영적 진리를 빚으로써 방산합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완전히 무죄한 자로 취급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고의적인 살인자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그의 추방은 비록 악의적인 의도 없이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부주의함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결함이 있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단순한 법적 피난처 그 이상이 됩니다. 도피성은 공정의 심판이 집행되는 와중에도 회복의 길을 예비하시는 יהוה (여호와) 의 “מִשְׁפָּט (미쉬팔 ;공정의)”와 “인애하심”의 속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심을 드러냅니다.

미드라시는 이 계명을 다윈의 선포, 즉 “여호와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라는 시편 말씀 25 장 8 절과, “여호와시여 아도노이의 רַחֵם (라캄 ; 긍휼하심)과 חַסֵּד (헤센 ; 인애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당신은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록하신 시편 25 장 6 절의 간절한 기도와 연결합니다. 다윈은 인류에게 베풀어진 신성한 자비의 최초 사례를 상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세기 2:17)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직후에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돌아 가시기 전까지 930 년을 사셨습니다(창세기 5:5). 신성한 “공정의”는 그 말씀을 지켜 돌아가게 하셨으나, 신성한 “인애하심”의 여호와의 속성은 그 심판의 완전한 집행을 아주 오랫동안 유예했습니다.

미드라시는 아담이 받은 형벌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받은 형벌과 유사했다고 설명합니다. 아담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그는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여호와와 명백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둘째, 그는 온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잘못에 대해 그는 즉각적인 죽음을 맞이했어야 마땅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인애하심으로 첫 아담이 오랜 시간을 계속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경우, 즉각적인 멸망을 당하는 대신 그는 동방의 에덴에 세우신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자신의 집을 떠나 도피성으로 피신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다윈 왕께서는 불순종하며 타락한 인류를 향한 그 첫 번째 대응으로 즉각적인 전멸이 아닌 ‘희망을 동반한 추방’을 택하신 여호와의 영원하신 인애하심을 송축하십니다.

『베레시트 라바』(19:8)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의 열매인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주었으며, 정작 아담 자신은 처음에 그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전승이 아담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범법 행위에 ‘의도치 않게 저지른 일’이라는 요소를 더해줍니다. 과실치사범과 마찬가지로, 아담 또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미래 결과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죄를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드라시는 하나의 지속적인 성경적 원리를 확립해 세웁니다. 즉, 사람은 의도치 않게 죄를 지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의 댓가와 그 죄에 대한 회복의 행위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מקלט’ (미크랄 ; 도피성) 제도에도 적용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하셨을 때, 모세는 땅의 먼 곳에 사는 사람이 어디로 피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여쭙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너를 위하여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하게 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신명기 19:3).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매년 보수하고, 넓히고, 평탄하게 다듬었으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강 위에는 다리를 놓았고, 교차로에는 ‘미클라트(도피처)’라는 단어 하나가 적힌 커다란 표지판을 세워 도망자가 안전한 곳으로 향할 수 있게 했습니다(마코트 10b). 이처럼 토라는 여호와와 속성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단순히 피난처를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이르는 길까지 직접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선택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바른 길로 죄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점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길’은 한 사람의 도덕적, 영적 방향성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안에 “여호와와 길”을 가르치도록 선택 받았습니다(창세기 18:19). 현인들은 의로움을 “생명의 길”이라 묘사했고(베라호트 28b), 악은 “악한 길”이라 불렀습니다(베레시트 라바 70:4).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세우는 삶은 그가 걷는 길에 의해 정의됩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테슈바(회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비유가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죄인에게 단순히 회개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곧 여호와께로 되돌아가는 그 길을 예비하십니다. “공정의”는 책임을 요구하지만, “인애”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불필요한 장애물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

라쉬(Rashi)는 과실치사범의 경우, 그 ‘유배(추방)’ 자체가 “속죄의 방책의 일부”임을 설명합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회개를 일깨웁니다. 람반(Ramban) 또한 비록 의도치 않은 살인이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지극히 존귀하기에 부주의함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 악한 의도가 없었다 할찌라도, 모든 인간에게 깃든 신성한 형상에 대한 경외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영적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샬롬